



[예류] 외국인 유학생 16만명 돌파 불법체류 등 골머리 L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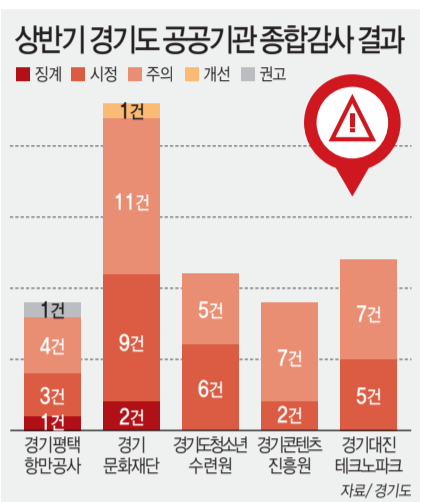
Life

[인터뷰] 이스트소프트 정상원대표 소프트웨어 아닌 AI 대표기업 꿈꾼다 L6



공사 중 준공처리, 세금 미납... 경기도 공공기관이 이래서야

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문화재단 등 5개 기관 감사 결과 65건 적발 5명 징계, 5970만원 환수 조치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할 것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하고 태만한 업무처리 행태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에 대해 상반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6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도 감사관실과 민간 전문 감사관으로 구성된 5개의 합동감사반이 참여했다. 도는 적발된 65건에 대해 경징계(3건), 시정(25건), 주의(34건), 개선(1건), 권고(1건)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5970만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1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 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2천여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는데도 사업부서가 세금계산서를 발

행하지 않았고 관리부서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 974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는 관련자를 업무태만으로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경기문화재단은 안산 문화재생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추후 공사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 후 준공처리를 해준 관련자를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문화재단은 또 용역 업체선정 과정에서 외부위원 평가를 해야 하는데 내부 자문회의만 거쳐 A업체와 계약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A업체가 해당 용역을 다른 업

체에 재용역을 줬는데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관련자 3명을 부적정 계약수행과 감독 태만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 문책하도록 조치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유기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승진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대진테크노파크의 인사관리와 취업규칙을 개정하도록 시정조치 등을 요구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도 공공기관들이 조직 확대에 따른 투명성 확보나 내부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기관의 감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16개 전문분야의 도시민감사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하반기에 산하 전체 공공기관 25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은 해당 기관의 감사계획과 결과, 처리 등의 과정을 미리 구성된 시스템에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감사원에서 사용 중이다.

/의정부=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전주 완산공원 벙커, 문화시설로 ‘변신’

46년 전 조성된 동굴형 벙커 전주 대표 문화재생시설 될 것



완산공원 방공 벙커. /전주시

전시상황에서 방공호와 지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46년 전에 조성된 완산공원의 동굴형 벙커가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된다.

옛 충무시설이 문화관광시설로 재생되면 20년간 굳게 문이 닫혀 있는 폐공장이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팔복예술공장과 더불어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재생시설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계획수립 연구대상지 공모사업’에서 완산공원 내 옛 충무시설이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973년 군, 경찰, 행정이 전시상황에 대비해 행정지원과 작전을 지휘하고 방공호로 활용됐던 공간으로 건축된 옛 충무시설은 흔치않은 터널형 건축물로 보존가치가 높고 지역적·장소적·환경적 특성, 문화재생의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는 게 문화부의 선정 이유다.

시는 이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원과 지역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갖춘 뒤 다음 달부터 연구기관을 통해 기본계

획수립 연구용역에 착수, 올 연말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국비 2000만원이 투입되며 충무시설의 사업성 분석, 환경 및 물리적 현황 조사, 공간·운영 기본방향, 문화재생 방향성 등의 결과물을 내놓게 된다. 이후 활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옛 충무시설은 2816.35㎡(853평)의 면적에 터널 길이는 130m 가량에 달하며, 지난 2006년 용도폐기 후 2014년에 사용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다.

시설 내부는 사무실 10개, 기계실, 배전실 등 20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항상 1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특징으로 보수·보강 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전주=봉채영 기자 bcy2020@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나무 210만그루 심는다

3개 자동차전용도로에 160억 투입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 해결



강변북로 나무 식재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자동차전용도로에 21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3개 자동차전용도로에 160억원을 투입해 나무 210만 그루를 식재한다. 올해 17만6000그루, 2020년 73만3000그루, 2021년 48만7000그루, 2020년 70만4000그루를 심는다.

시는 “세 도로는 서울에서 차량통행

이 가장 잦은 곳으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나무 식재를 통해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는 도로라는 열악한 생육환경을 고려해 국립산림과학원 지정 ‘미세먼지 저감 수종’과 서울기술연구원의 ‘수종 및 식재 방식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적합한 나무를 선정해 심을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차만 다니던 삭막한 아스팔트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은 공간과 기능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숲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군산 꽃새우’ 재구매 영향... 새우값 급등

수매 중단에 어민·지역 정치권 반발 재구매 결정 후 폭락했던 가격 안정

시작했다고 군산시는 설명했다.

농심이 새우값의 원료로 ‘군산 꽃새우’를 다시 사용하기로 하면서 폭락했던 가격도 오름세로 전환됐다.

7일 전북 군산시에 따르면 이날 위탁 판매된 꽃새우 1상자(15kg)의 평균 가격은 3만5000원대를 나타냈다. 지난달 하순에 2만7000원대까지 급락했던 것에 비하면 30%가량 오른 것이다.

군산 꽃새우 가격은 농심이 재구매 결정을 내린 직후인 지난 2일 평균 2만8000원을 기록하며 급락세에서 벗어났다. 이후 4일 3만3000원대로 뛰었고 농심의 재구매 첫날인 6일 다시 가격이 소폭 상승한 뒤 이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농심은 군산수협과 지역의 가공공장 등을 통해 1.5~1.8 t 가량을 사들이기

농심은 지난해를 끝으로 수매를 중단했다가 어민과 지역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자 지난달 30일 재구매 결정을 내렸다.

농심은 꽃새우가 잡히는 이달 하순께까지 비슷한 양을 사들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꽃새우 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큰 등락 없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가격대는 2016년 평균 5만4000원, 2017년 8만7000원, 지난해 4만3000원보다는 낮은 것이어서 어민들의 불만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 다행”이라면서도 “농심의 현재 수매량은 전체 생산량의 10% 수준으로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더는 크게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봉채영 기자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구간 연말 착공

노선 연장사업 2024년 말 개통 목표

지하철 7호선 북부노선(도봉산~옥정) 연장 사업이 연말 착공된다. 의정부 시내 구간인 2공구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하철 7호선 북부노선 연장 사업은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도봉산역~의정부 잠암역~탑석역~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15.3km에 건설된다.

도봉산역~잠암역 1.1km는 기존 노선이 이용된다. 나머지 14.2km는 잠암역~탑석역(1공구), 탑석역~양주시계(2공구), 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3공구) 등으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된다.

경기도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 2공구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2공구는 올 초 업체가 선정돼 현재 설계 중이다. 10월께 국토교통부로부터 설계를 승인받아 이르면 11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1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 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1공구와 3공구는 노선 설계가 진행 중이며 이후 공사 업체가 선정된다. 두 공구는 내년 상반기 중 착공된다.

경기도는 최근 1·3공구 공사에 신기술과 특허기술을 적용하고자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 4위 업체까지 선발했으며 조만간 1위 업체와 협약, 해당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의정부=김승열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40 | 해질 / 19:36

8월 8일 (木) 음력 : 7월 8일

수도권 날씨 33~25°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